

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 확실시

개표 초반부터 우위...상·하원 동시 장악 유력 민주 패배 책임론 등 후폭풍...오바마 레임덕도

4일(미국 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개표 초반부터 우위를 보이며 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개표결과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의 승패를 가를 상원의 경합주 13곳(민주당 소속 10곳, 공화당 소속 3곳) 가운데 상당수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켄터키 주에서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엘리스 런던건 그리입스 후보를 큰 격차로 제치고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 현역 지역구인 아칸소 주에서는 톰 코튼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현역인 마크 프리이어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역시 민주당 지역구였던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공화당의 셸리 무어 카피토 후보가 민주당의 탈리 테넌트 후보를 압도했다.

초박빙 접전이 예상됐던 조지아 주에서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후보가 민주당의 미셸 넌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의 승리가 당연시되던 버지니아 주에서는 개표 초반 공화당의 에드 길레스피 후보가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을 앞섰으며 이번이 연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졌던 뉴햄프셔 주는 예상대로 민주당의 진 사틴 후보가 공화당의 스킷 브라운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케이 레이건 민주당 주지사가 공화당의 톰 윌리스 후보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

캔자스 주는 공화당의 팻 로버츠 후보와 무소속 그레그 오먼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만일 오면 후보가 승리하고 양당의 상원의석수가 1석 차이에 그친다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의석이 100석인 상원은 현재 민주당이 55, 공화당 45석이며 공화당이 현재의 의석에 6석만 추가하면 다수당의 지위를 점한다. 이날 상원의원 선거는 전체 의석의 3분의 1과 보궐선거 대상을 포함한 36곳에서 치러졌다.

미국 주요 언론은 초반 개표결과와 출구 조사를 토대로 공화당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현재의 의석보다 최소한 6석 이상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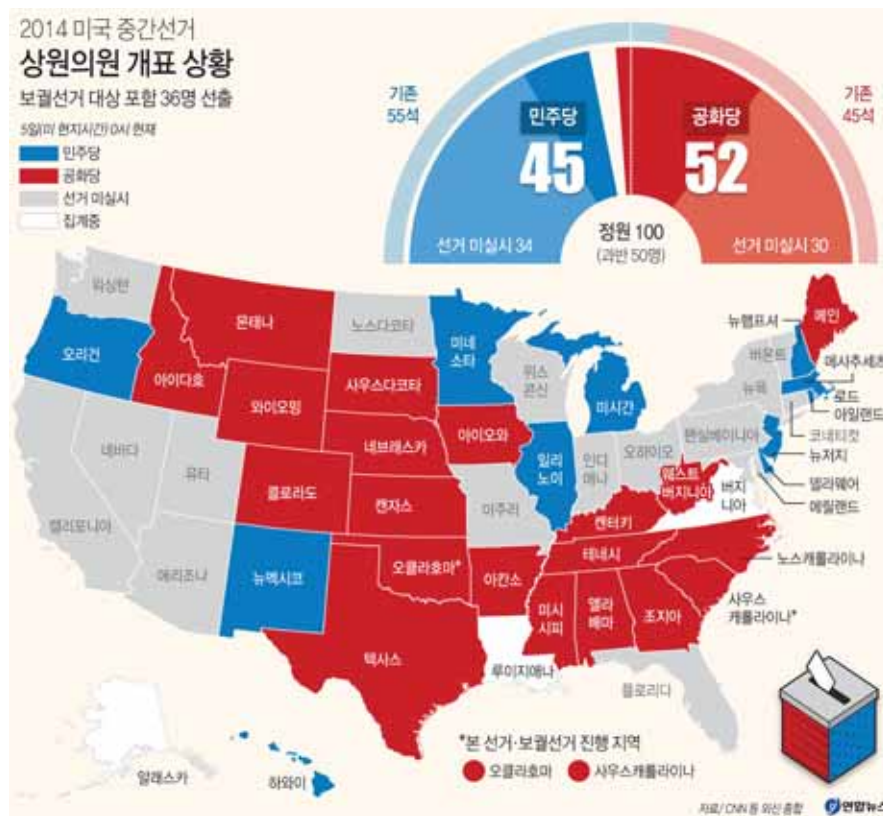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최소 226석(과반은 218석)을 얻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 CBS 방송과 NBC 방송이 보도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수성하고 상원을 탈환하는 데 성공할 경우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이래 8년 만에 명실상부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도래하게 된다.

이 경우 공화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경쟁에서도 한층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008년과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을 밀었던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돼 의회 내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는 동시에 선거패배 책임론 속에서 지도부 교체 등 극심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후반 국정장악력이 적신호가 켜지면서 급격한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 날인 4일(현지시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국 CNN방송을 통해 루이지아나 주 뉴올리언스 개표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APEC 회의 베이징서 개막 한·중 정상 'FTA타결 선언' 촉각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게 될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5일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에서 APEC 제4차 고위관리회의(SOM)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SOM 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의 고위관리들이 참석, 10~11일 열리게 될 제22차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합의사항 등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어 7~8일에는 각국의 외교, 산업·통상 분야의 장관들이 주로 참석한 가운데 APEC 제26차 장관급 회의가 개최된다.

이후 9~10일에는 각국의 기업인과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APEC 최고경영자(CEO) 고위급 회의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등이 개최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별도의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예고한 바 있다.

올해 APEC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10~11일에 열리는 제22차 APEC 정상회의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총출동한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AP)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FTAAP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제 움직임에 맞서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이번 정상회의 선언문에 이 내용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세계 경제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예정으로 중국은 자국이 강조하는 기초시설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등 각국 정상 간의 양자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석은 APEC 회의 기간 취임 후 5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양국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할 합의사항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선언이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FTA 핵심 쟁점의 일괄 타결을 위해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6일부터 제14차 한중 FTA 협상에 돌입한다.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 중강 정상회담은 APEC 회기가 끝난 다음 날인 12일에 개최된다. /연합뉴스

IS, 여성 인신매매·아동 가혹행위 심각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인신매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IS가 인질로 삼은 쿠르드족 어린이들에 가혹행위를 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IS가 이라크에서 납치한 소수종족 여성을 인신매매하면서 '가격'을 명시한 문서를 발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HRW에 따르면 IS는 지난 5월 시리아 알레포에서 시험을 치고 코바니로 돌아가던 14~16세 쿠르드 남학생 153명을 붙잡아 북부 만비츠의 학교에 가둬다. IS는 학생들을 때리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했으며 참수와 IS의 공격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탈출하려고 하거

나 종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할 경우, 자신들이 보기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마다 전신이나 호스로 때렸다고 HRW는 전했다.

HRW는 풀려난 어린이 인질 4명을 면담해 IS의 이 같은 가혹행위를 정리했다.

IS는 6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든 학생 인질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라크 전문매체 이라키뉴스는 3일(현지시간) IS가 납치한 야지족과 기독교인 여성을 매매할 때 값을 자체 책정한 문서를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그간 IS는 20대 안팎의 젊은 여성을 주로 매매해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들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인신매매를 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연방 하원의원 도전 한국계 로이 조 '고배'

지한파 모임 의원들 선전...탈북자 인권운동가 수잔 솔티 낙선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 결과, 한국계 후보나 지한파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명암이 갈렸다.

이번 선거에서 연방 의원에 도전했던 유일한 한국계 후보인 뉴저지 주의 로이 조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33세의 신예로 중앙 정치무대에서 첫 선거를 치른 조 후보는 뉴저지 주 제5선거구에서 현역 하원의원인 공화당 6선 스티브 가렛 의원에 도전했으나 분수를 삼켜야 했다.

개표 결과, 가렛 후보는 55.7%, 조 후보는 43%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조 후보는 제5선거구의 선거구 조정으로 유권자층에 민주당 지지층이 다수 유입되고, 현지 한인 사회의 응집 속에 100만

달러에 가까운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세를 탔으나 '현역 프리미엄'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지한파로 분류되는 가렛 의원은 12년간의 의정 활동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로감' 때문에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견고한 지지세를 재확인시켰다.

미국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

스 소속 상원의원 중에서는 공화당 쪽 공동의장인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68%의 지지율로 예상대로 낙승을 거뒀다. 코리아코커스 소속 하원의원의 경우, 민주당 쪽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버지니아) 의원이 56.9%의 지지율로 무난히 승리했다.

마이클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피터 로스켄(공화·일리노이) 의원은 모두 6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티어,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시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중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중

원적외선 히터의 11중

대형 제습기의 2중

이동식 에어컨의 11중

범시온탕 소독기의 5중

무등산업

(062) 372-7585 시·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

성황리 공개중

순천 최초 수직형 미니아파트 리가안

적게 투자하고 크게 누려라!

1억투자시 월160만원 수익

생활편의·교통·문화·교육의 중심에 위치

지상 2층의 하층정원과 1층의 옥상하늘정원

무인택배시스템

구. 순천민정원(비밀회) 1km내에 위치 (순천민정원 조망권)

휘트니스센터

1599-1129

268㎡ 리가안에 주목하라

29㎡ 33㎡ 35㎡ 52㎡

방문고객 사은품증정

M/H 홈플러스 풍곡점 주차장 뒷편